

고1  
공통국어1  
비상(박영민)

2027 고1 공통국어1 비상(박영민) 2(2) 공동체와 의사소통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이 단원에서는 대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대화 상황에 적용된 격률을 파악하는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이나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 ‘동의를 격률’ 등 구체적인 격률을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대화 예시를 제시하고 각 상황에 맞는 격률을 정확히 연결 짓거나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1~2】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가)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서로 협력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를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A: (최근에 전학을 온 학생에게) 축구 잘하니?

B: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유소년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실력을 인정해 줄 정도였어.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즐겨했고, 주말마다 축구 클럽에 나가서 꾸준히 연습을 했더니 축구 실력이 늘어서 잘하게 됐어.

(나) 대화의 원리 중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극대화하는 공손성의 원리가 있다. 이것은 또다시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칭찬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를 격률로 나뉜다.

첫째, 요령의 격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극대화한 것이다.

둘째, 관용의 격률은 화자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한 것이다.

셋째, 칭찬(찬동)의 격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한 것이다.

넷째, 겸양의 격률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한 것이다.

다섯째, 동意的 격률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한 것이다.

1. 글 (가)의 대화 내용은 ‘협력의 원리’ 중 어떤 격률의 오류를 범한 것인가?

- ① 양의 격률
- ② 질의 격률
- ③ 태도의 격률
- ④ 관련성의 격률
- ⑤ 체면 유지의 격률

2. 글 (나)의 내용을 살피고 아래 <상황>에 제시된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상황>

(대화 상황)

수업 중 발표를 잘한 학생에게 선생님이 칭찬해 주는 상황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선생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기 의견을 구체화한 점이 인상 깊네요. 아주 발표를 잘 했어요.

학생: 아직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좋게 봐주신 덕분입니다.

- ① 요령의 격률
- ② 관용의 격률
- ③ 칭찬의 격률
- ④ 겸양의 격률
- ⑤ 동意的 격률

3. 다음 대화에 드러난 ‘공손성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1: 요즘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지?  
 학생2: 응, 맞아. 봄이 확실히 온 것 같아. 산책하기 딱 좋더라.  
 학생1: 맞아! 어제 저녁에 공원에 갔는데 꽃도 많이 피었더라.  
 학생2: 와, 나도 이번 주말에 공원 한번 가봐야겠다. 꽃구경 좋지!

- ① 관용의 격률
- ② 요령의 격률
- ③ 동의의 격률
- ④ 겸양의 격률
- ⑤ 칭찬의 격률

4.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면?

<보기>

대화의 원리에는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등이 있다.

- ① A: 어제 회의 몇 시에 끝났어?  
B: 오후 3시에 끝났어.
- ② A: 내일 행사 장소 정확히 어디야?  
B: 시청 앞 문화광장, 지하철 2호선 출구 바로 앞이야.
- ③ A: 우리 다음 주 발표 주제 뭐로 할까?  
B: 지난번에 조사했던 친환경 에너지 어때?
- ④ A: 이 약 먹으면 정말 열이 금방 내리니?  
B: 응, 나는 지난주에 먹고 2시간 안에 열이 내렸어.
- ⑤ A: (회의에서 발표를 마친 후) 좀 긴장해서 말이 꼬인 것 같아.  
B: 전혀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내용이 명확해서 이해가 잘 됐어.

5. <보기>의 각 대화에 어울리는 공손성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로 적절한 것은?

<보기>

㉠ A: 이번 주말에 이사하신다면서요?  
B: 네. 짐이 좀 많아서 걱정이예요.  
A: 그럼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들러서 도와드릴까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 A: 이번 회의는 좀 길었던 것 같아.  
B: 맞아. 내용은 좋았는데 조금만 더 간결했으면 좋았겠지.

㉢ A: 오늘 자료 정리 많이 남았지? 같이 할까?  
B: 아니야. 오늘은 내가 늦게까지라도 남아서 마무리할게. 너는 먼저 들어가.

㉣ A: 오늘 발표 진짜 잘하더라. 목소리도 또렷하고.  
B: 고마워! 너도 질문할 때 핵심을 잘 짚어서 인상 깊었어.

㉤ A: 너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이거 전시해도 되겠어.  
B: 에이, 아직 배울 게 많아. 그냥 꼬적인 거야.

- ① ㉠: 요령의 격률
- ② ㉡: 칭찬의 격률
- ③ ㉢: 겸양의 격률
- ④ ㉣: 동의의 격률
- ⑤ ㉤: 관용의 격률

신유형

이 단원에서는 ‘대화 함축’, ‘순서 교대’, ‘체면 유지’와 같은 개념을 다루거나 여러 원리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학생회장 연설문, 고전 소설 「사씨남정기」 등 다양한 담화 상황이나 글을 제시하여 실제적인 적용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말하기나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전통적 담화 관습과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현대적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 유형도 출제됩니다.

**【6~7】 다음 <보기1>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1>

여러 의사소통 유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대화이다. 대화는 화자와 청자로 이루어지며 대개 이 역할은 순서 교대에 의해 끊임없이 바뀐다. 대개 순서 교대는 교체 적정 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하여 호칭하거나, 고갯짓이나 시선, 억양 등의 신호를 보내 말할 권한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 사람이 말을 길게 하거나 대화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원활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묵시적으로 작용하는 대화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은 대화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는데, 그중 하나로 영국의 언어학자 그라이스(Grice)가 제시한 협력의 원리가 있다. 협력의 원리란 의사소통의 기본 전제인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지금 이루어지는 대화 흐름에 합치되도록 말을 하면서, 대화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라이스는 대화가 일종의 협동 작업이라는 일반 원리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지켜야 할 네 가지 격률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양의 격률은 대화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으면 바람직한 대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칫 대화를 독점하여 적절한 순서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질의 격률은 화자가 타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대화 상대에 대한 화자의 신뢰와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관련성의 격률은 현재 진행되는 대화의 화제와 관련된 말을 하라는 것이다. 대화 화제에 벗어나는 말

을 하는 것은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 간의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네 번째 ㉣태도의 격률은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화에서 참여자는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표현은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한편,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대화의 격률을 위반하기도 한다. 그라이스는 문장 A가 주장됨으로써 A 자체의 귀결이 아닌 사실들이 유도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대화 함축이라고 설명했다. 대화 함축이란 형식적으로는 협력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 참여자가 협력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숨겨진 의미이다. 따라서 대화 함축은 발화 내용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화자가 어떤 의도를 암시하거나 함의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때 의미 해석을 위해 대화 상황이나 맥락, 이야기 전체의 배경적 지식, 상대에 대한 축적된 지식 정도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6. <보기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특정 상대를 바라보는 것은 교체 적정 지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② 그라이스는 대화 참여자 간 가정된 협력이 깨져더라도 숨겨진 발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협력의 원리를 지켜 대화하는 것은 대화 참여자 간의 공감대 형성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원활한 대화에 묵시적으로 작용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여러 학자들의 노력이 있어 왔다.
- ⑤ 화자의 발화 속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때는 해당 발화자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7. <보기1>의 ㉠~㉣을 바탕으로 <보기2>의 대화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2>

예나: 애들아, 주말에 카페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곳 있어?

유정: ○○ 카페의 분위기가 괜찮더라. 근데 인기가 많은 곳이라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거기 디저트들이 워낙 맛있어서 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곳이나 으려나?

채린: 주말에는 밀린 숙제 하느라 시간 다 가겠다.

예나: 그 카페에서는 어떤 디저트가 제일 맛있어?

유정: 딸기 빙수가 제일 맛있어, 연유가 가득 들어 있어서 엄청 달콤하고 부드러운 데다가, 딸기가 듬뿍 올려져 있어서 가성비도 최고야. 아. 그리고 보니 그 옆의 △△ 카페는 음료들이 가성비가 좋아. 양이 많더라고.

예나: 음료보다는 디저트가 더 중요해서 일단은 디저트가 맛있다는 ○○ 카페를 검색해 봐야겠다. 참, 어제 국어 쪽지 시험은 다들 잘 봤어?

유정: 기분도 그런데 우리 산책이나 하자.

예나: 그래, 좋아. 어디로 갈까?

채린: 요 앞 공원에 새로 조성된 산책길로 가자.

- ① '예나'의 카페 추천 요청에 '유정'은 '○○ 카페'에 대한 추천 여부를 명료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채린'은 카페 추천에 대한 화제로 시작된 '예나'와 '유정'의 대화 흐름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유정'은 디저트와 관련된 '예나'의 정보 요청에 필요 이상의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예나'가 '유정'의 '△△ 카페' 추천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유정'의 발화 내용이 타당성이 떨어져 ㉣을 위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시험' 관련 질문에 '유정'이 ㉢을 위반하여 답했

음에도 '예나'와 '채린'이 '유정'의 대답을 이어받고 있는 것은, '유정'의 답에 ㉡이 있음을 추론했기 때문이겠군.

8. (가)를 참고하여 (나)의 [A] ~ [E]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3>

(가)

정중 어법	㉠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며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 상대를 배려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예의 이론	㉢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상대를 칭찬하며 말하기
	㉣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기
	㉤ 상대의 의견에 공감을 먼저 표현한 이후 이견이 있음을 말하기

(나)

미경: 자료 정리까지 끝냈으니, 이제 다음 역할을 정해 보자. 보고서는 두 명이 맡아 작성하고, 한 명은 발표 자료 제작, 한 명은 발표를 맡는 게 어때?

[A] 상수: 좋은 생각이야. 아무래도 보고서 작성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둘이 함께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 그럼 내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해도 될까?

[B] 수영: 아니 넌 빠져. 지난번 자료 수집 때 네가 자료 제출 기한 놓치는 바람에 우리 모두 점수 깎였잖아. 사회 시간에 우수한 보고서 작성으로 선생님께 칭찬 받은 나랑 종현이가 이번 국어 수행 보고서도 맡는 게 어때?

[C] 종현: 사회 수행 때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았는데 모둠원들이 잘 도와줬었어. 이번에 보고서 작성을 맡게 되면 더 열심히 노력해 볼게.

미경: 그러면 수영이랑 종현이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수는 나랑 남은 역할 중에 하나씩 맡자.

[D] 상수: 지난번에는 사정이 있었다니까. 수영이 네가 멍청하게 잘못된 자료 수집하는 바람에 점수 깎였던 거는 기억 안나? 이번에 내가 발표 자료 제작 맡아서 지난 실수 만회할게. 보고서는 토요일까지 완성해서 나한테 보내. 그걸 토대로 발표 자료 완벽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

[E] 종현: 토요일은 내가 할머니 댁에 가야 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 혹시 일요일까지 보고서를 완성한 뒤에 보내도 괜찮을까?

- ① [A]: 두 명이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직전 발화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현하고, 그에 대한 이견은 발화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의문문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 ㉡을 모두 지켰다.
- ② [B]: 보고서 작성을 맡겠다는 직전 발화자의 요청을 거절하며 과거의 실수를 지적하고, 발화 상대의 칭찬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 ㉣, ㉤을 모두 어겼다.
- ③ [C]: 직전 발화자의 칭찬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표현하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 ㉡을 모두 지켰다.
- ④ [D]: 특정 상대의 잘못을 언급하며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완성된 보고서 전달을 요청할 때 보고서 작성자를 고려하지 않은 명령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 ㉢을 모두 어겼다.
- ⑤ [E]: 직전 발화자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지는 않고, 자신과 직전 발화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의 시작 시점을 늦출 수 있을지 물었다는 점에서 ㉠, ㉣, ㉡을 모두 지켰다.

【9~11】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가)

그라이스(Grice)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협력의 원리로서 네 가지의 격률을 제시한 바 있다. 네 가지의 격률에 따르면 대화 참여자는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그러나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네 가지의 격률을 위배하는 일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발화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외에 어긋난 경우도 많다.

(나)

선생님: 철수야, ㉠ 지금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철수: 네, 물론이죠. 뭘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교실 공사 소리) 여기 있는 짐들을 교무실까지 함께 옮겨줄 수 있을까?

철수: ㉡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전보다 큰 소리로) 이 짐들을 교무실까지 함께 옮겨줄 수 있을까?

철수: 아, 네. 그럼요. 저기 큰 짐은 제가 들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 종례가 끝난 뒤라 그런지 학교에 사람들도 거의 없네. 그나저나 철수는 언제나 열심이구나. 자율학습실로 가던 길인 걸 보면.

철수: ㉢ 아닙니다. 제가 워낙 부족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이 필요할 뿐인걸요.

선생님: (웃으며)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 (교무실에 들어서며) 들고 온 짐은 거기 아무데나 놓으렴. 많이 힘들었지?

철수: 아닙니다. 오랜만에 운동 좀 했는걸요.

그런데 선생님, 교무실이 참 좋네요. ㉔책상 구석구석 어쩌면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선생님은 역시 깔끔하게 생활하시네요.

선생님: 교무실은 좋지만, 우리 반 학생들이 요즘 감기에 많이 걸려 큰일이야. 이러면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 텐데…….

철수: ㉕제 주변에도 감기에 걸린 친구가 많아 선생님 기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선생님 그래도 힘내세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선생님: 고맙다, 철수야. 맞다, 갑작스럽지만 오늘 상담 좀 하고 가지 않을래? 지난 모의고사 결과 때문에 할 얘기가 있거든. 생각난 김에 대화 좀 하면 좋겠는데, 괜찮지?

철수: ㉖글쎬요……. 오늘은 밀린 학원 숙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아서 시험 공부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모의고사 상담도 하긴 해야 하고…….

(다)

(유 소사가 지현에게 부탁하여 유모를 통해서 소저에게 청혼의 뜻을 전하고 답변을 듣는 상황)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노야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립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유 소사 님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 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소사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을 택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라)

(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연설을 하는 상황)

후보자: 저 혼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믿어 주는 친구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중학생 때부터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회 운영 경험을 풍부하게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결단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으

로 문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된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 주세요.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9. 아래는 (가)를 고려해 (나)의 ㉔를 고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은 밀린 학원 숙제를 해야 해서 예정에 없던 상담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 ① 정보의 양이 줄어 상대에게 진실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 ② 정보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줄어 '상담 약속을 잡는다'라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 ③ 모호한 표현을 없애고 명료한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상담 약속을 잡는다는 대화의 목적에 맞게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있어.
- ④ '상담 약속을 잡는다'라는 대화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많이 활용해 대화의 목적 달성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 ⑤ 타당하지 못한 근거를 활용해 대화함으로써 상대가 진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

10.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나)의 ㉔~㉖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생님은 ㉔과 같이 말함으로써 철수에게 선택권을 주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다.
- ② 철수가 ㉕과 같이 말한 것은 의사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다.
- ③ 철수는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하여 공손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기 위해 ㉖과 같이 말하고 있다.

- ④ ㉠과 같이 표현한 것은 철수가 선생님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하고 비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 ⑤ 철수는 상대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 사이에 발생하는 일치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 같이 대화하고 있다.

**11. (다)와 (라)에 나타나는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에서는 (라)와 달리 상대를 높이는 표현을 활용하는 말하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 ② (다)에서는 (라)와 달리 자신을 낮춰 스스로의 겸손함을 보이는 말하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 ③ (라)에서는 (다)와 달리 스스로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내보이는 말하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 ④ (다)에서는 (라)에 비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 ⑤ (라)에서는 (다)에 비해 상대에게 거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저는 저를 믿어 주는 친구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학생회 임원으로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회 운영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빠른 결단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문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된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 주세요. 그 누구보다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12. (가)와 (나)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겸손함이 느껴져 성실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우리말의 전통적인 담화 관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와 같은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예의 바른 느낌을 줄 수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자신감을 드러내어 유능한 느낌을 줄 수 있다.

**13. <보기>의 대화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동화: 좋아! 근데, 너 어제 축구부 입단 시험 본 건 어떻게 됐어?  
 화성: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내가 축구화를 어디에 두었더라?

- 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대화 함축을 통해 협력적인 태도를 통해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② 의도적으로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피하고 있다.
- ③ 의도적으로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며 상대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피하고 있다.
- ④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과의 자신의 의견 일치를 최대화하고 있다.
- ⑤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 직접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다.

14. <보기>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국인: 아, 오늘 국물이 시원하니, 아주 좋은데요!  
 외국인: 앗! 뜨거워! 국물이 시원하다고요?

- ① 직업에 따라 언어 공동체가 사용하는 말이 다를 수 있다.
- ② 시대의 변화로 언어 실천 양상이 새롭게 변했음을 나타낸다.
- ③ 언어 공동체의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 만든 표현이다.
- ④ 문화에 따라 언어 관습이나 표현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⑤ '부추'를 '정구지, 솔, 세우리' 등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15. 다음 중 대화의 원리와 관련하여 <보기>의 ㄱ~ㄴ에 대한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친구와 대화 중에서) 너는 너랑 안 어울리는 옷만 입는 것 같아. 옷이 그게 뭐야.  
 ㄴ. (선배의 격려에 대한 반응으로) 선배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 경기에서 이겼을걸요?  
 ㄷ. (교실에서 부탁하는 상황에서) 에어컨 좀 꺼 줘.  
 ㄹ. (발표를 잘한다고 칭찬받은 상황에서) 제가 발표를 잘하는 편이에요.  
 ㅁ. (친구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싫어. 곧 시험인데 어딜 가냐? 너나 가.

- ① ㄱ: 친구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해야 해.
- ② ㄴ: 상대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존중의 표현을 해야 해.
- ③ ㄷ: 상대방에게 부담이 적도록 질문 형식으로 요청해야 해.

- ④ ㄹ: 자신의 칭찬은 최소화해서 겸손하게 반응해야 해.
- ⑤ ㅁ: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해서 동의해야 해.

16. <보기>의 (가)~(마)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담화 관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이 씨가 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가 있다.

(나)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번거롭고 시끄럽다고 해도 정신을 정돈하여 그 대략을 잘 기억할 것이며, 함부로 들어 넘기지 말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음란한 말, 도리에 어긋난 말, 허망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잘 속이는 말, 가혹한 말, 과장된 말, 원한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조금씩 뒤로 물러날 것이다.  
 -이덕무, '사소절' 중에서

(다)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 하였다. 그가 일찍이 벗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주인은 술상을 내오되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며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담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김 선생이 그를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 서거정, 「차계기환」

(라)

(유 소사가 지현에게 부탁하여 유모를 통해서 소저에게 청혼의 뜻을 전하고 답변을 듣는 상황)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노야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림 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유 소사 님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 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소사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을 택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마) 우리나라 일부 식당에서는 ‘맛없으면 공짜’라는 문구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맛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는 식당 주인장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

- ① (가)의 글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말조심해야 하는 ‘신중하게 말하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 ② (나)의 글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되 필요한 내용만을 가려들어야 하는 ‘경청과 가려듣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 ③ (다)의 글은 직설적인 표현은 삼가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완곡하게 말하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 ④ (라)의 글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겸손하게 말하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 ⑤ (마)의 글은 과거의 담화 관습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언어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말하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17. 공손성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중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되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

- ① 요령의 격률
- ② 관용의 격률
- ③ 칭찬의 격률
- ④ 겸양의 격률
- ⑤ 동의의 격률

18.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풀이된 것은?

<보기>

유 소사가 지현에게 부탁하여 유모를 통해 사 소저에게 청혼의 뜻을 전하고 답변을 듣는 상황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노야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림 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유 소사 님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 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소사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을 택했다.

- ① 지현: 알고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
- ② 노야: 자신의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
- ③ 누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방을 이르는 말.
- ④ 왕림하다: 임금이 직접 행차하여 방문하다.
- ⑤ 황공하다: 위엄이나 지위 따위에 놀리어 두렵다.

19. <보기>의 [가]와 [나]의 말하기 방식에 나타난 담화 관습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저는 저를 믿어 주는 친구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학생회 임원으로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회 운영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빠른 결단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문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된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 주세요.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 ① [가]는 친근한 느낌을 주는 반면 [나]는 거만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② [가]는 듣는 이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나]는 겸손한 느낌을 준다.
- ③ [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부각되는 반면 [나]는 자신의 능력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 ④ [가]는 자신감 있고 결단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나]는 결단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 ⑤ [가]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반면 [나]는 이야기의 전달력이 떨어진다.

20. 다음 대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윤형: 한 달 동안 준비했던 과학 프로젝트가 드디어 내일 발표네. 발표는 현우 네가 해.

현우: 뭐야, 나한테 미리 말한 적 없었잖아. 부담스럽게 왜 그래. 암묵적으로 조장인 네가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윤형: 미안해. 내가 자료 조사하랴 발표문 제작하랴 정신이 없어서 미리 말해 주지 못했네. 내가 발표문 얼른 보내 줄 테니까 발표 좀 해주면 안 될까?

현우: 그걸 혼자서 다 했었어? 엄청 부지런하구나. 정말 대단하다, 윤형아!

윤형: 응. 사실 나는 어릴 적부터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 알아 주니 고맙네.

- ① 윤형이는 현우에게 갑작스레 발표를 맡겨 부담을 주고 있다.
- ② 현우는 윤형이의 사정을 전해 들은 후 윤형이를 칭찬하고 있다.
- ③ 윤형이는 자신에 대한 찬사를 들었음에도 칭찬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 ④ 윤형이는 사정을 설명한 후 다시 현우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부탁하고 있다.
- ⑤ 현우는 윤형이가 요령의 격률을 어겨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①

화자는 질문에 대해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해야 하는데, 질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까지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이는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 ② ‘질의 격률’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원칙이다.
- ③ ‘태도의 격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원칙이다.
- ④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라는 원칙이다.
- ⑤ ‘체면 유지의 원리’이며, ‘체면 유지의 격률’이라는 용어는 협력의 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정답 ④

학생은 선생님의 칭찬에 대해 “아직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공을 선생님에게 돌리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겸손)을 최대화하는 ‘겸양의 격률’에 해당한다.

- ① ‘요령의 격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② ‘관용의 격률’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③ ‘칭찬의 격률’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⑤ ‘동의를 격률’은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3. 정답 ③

두 학생은 “응, 맞아.”, “맞아!”, “꽃구경 좋지!”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동의를 격률’을 잘 지킨 사례이다.

- ① ‘관용의 격률’은 화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② ‘요령의 격률’은 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④ ‘겸양의 격률’은 화자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⑤ ‘칭찬의 격률’은 청자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4. 정답 ⑤

①~④는 묻는 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사실대로 제공하고 있어 ‘협력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대화들이다. 반면 ⑤는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자책하자, 상대를 배려하여 칭찬과 격려를 건네고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가 중심이 되는 대화이다.

- ① 질문에 대해 필요한 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협력의 원리를 지켰다.
- ②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협력의 원리를 지켰다.
- ③ 주제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대화 목적에 협력했다.
- ④ 약효에 대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대답하여 협력의 원리를 지켰다.

### 5. 정답 ①

㉠에서 화자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제안하면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라고 덧붙여 상대방이 느낄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요령의 격률’에 해당한다.

- ② ㉡은 상대의 의견에 동의한 후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으므로 ‘동의를 격률’에 가깝다.
- ③ ㉢은 자신이 늦게까지 남아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여 자신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관용의 격률’에 해당한다.
- ④ ㉣은 상대방의 발표 태도를 칭찬하고 있으므로 ‘칭찬의 격률’에 해당한다.
- ⑤ ㉤은 자신의 실력을 낮추어 말하고 있으므로 ‘겸양의 격률’에 해당한다.

### 6. 정답 ②

대화 함축은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격률을 걸어서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협력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숨겨진 의미이다. 즉, 협력이 깨진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 ① 화자가 특정 상대를 바라보는 것은 발언권을 넘긴다는 신호이므로 교체 적정 지점의 신호로 볼 수 있다.
- ③ 협력의 원리 중 하나인 관련성의 격률을 어겨 대화 화제에 벗어나는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공감대 형성을 방해한다.
- ④ 여러 학자들이 대화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중 그라이스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 ⑤ 대화 함축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축적된 지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7. [정답] ④

‘예나’가 ‘유정’의 카페 추천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정’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서(질의 격률 위반)가 아니라, 자신은 디저트가 중요한데 음료 가성비 좋은 곳을 추천했으므로 대화의 목적이나 화제에 맞지 않다(관련성의 격률 위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나’가 ‘유정’이 질의 격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유정’은 “아니면 다른 곳이 나으려나?”라고 모호하게 말했으므로 명료하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을 위반했다.
- ② ‘채린’은 카페 추천이라는 화제와 무관한 숙제 이야기를 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했다.
- ③ ‘유정’은 맛있는 디저트를 묻는 말에 빙수의 재료와 맛, 가성비까지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양의 격률(㉣)을 위반했다.
- ⑤ ‘유정’이 동문서답(관련성의 격률 위반)을 했음에도 대화가 이어지는 것은, ‘예나’와 ‘채린’이 그 속에 ‘시험을 못 봤으니 산책이나 가자’는 대화 함축(㉤)이 있다고 추론했기 때문이다.

8. [정답] ④

[D]에서 ‘상수’는 ‘수영’에게 “멍청하게 잘못된 자료 수집하는 바람에”라고 말하며 상대를 비방하고 있으므로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해야 하는 칭

찬의 격률(㉥)을 어겼다. 또한,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토요일까지 완성해서 나한테 보내.”라고 명령조로 말하여 상대에게 부담을 주었으므로 요령의 격률(㉦)을 어겼다.

- ① [A]는 제안하는 형식을 취해 부담을 줄였으나, 이견을 말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의의 격률(㉧)과는 거리가 있다.
- ② [B]는 직전 발화자(상수)가 ‘수영’을 칭찬한 상황이 아니므로 ‘칭찬에 대해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는 설명은 맥락에 맞지 않다.
- ③ [C]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양의 격률(㉨)을 지켰으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므로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상대를 배려하는 관용의 격률(㉩)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E]는 상대의 요청이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지 않는 ㉪을 지킨 것이며, ㉧과 관련이 없다.

9. [정답] ③

수정한 ㉫는 “상담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라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을 준수하여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이다.

- ① 정보의 양을 줄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명확히 전달한 것이다.
- ②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대화의 목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하고 있다.

10. [정답] ④

㉬에서 철수는 선생님의 자리가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다며 “선생님은 역시 깔끔하게 생활하시네요.”라고 칭찬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라는 ‘칭찬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 ① ㉭은 상대방(철수)에게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물어보며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요령의 격률’에 해당한다. 선지의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② ㉮은 잘 듣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으

므로 '관용의 격률'에 해당한다. 선지의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③ ㉠은 칭찬을 부인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으므로 '겸양의 격률'에 해당한다. 선지의 '칭찬을 최대화'라는 설명은 틀렸다.

⑤ ㉡은 선생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동의를 표하고 있으므로 '동의를 격률'에 해당한다. 선지의 '일치점을 최소화'라는 설명은 틀렸다.

11. 정답 ②

(라)의 첫 문장인 '저 혼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하기 방식이 확인된다. 따라서 (다)가 (라)와 달리 자신을 낮추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다)는 '노야', '왕림', '황공'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③ (라)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강조하며 거절의 뜻을 비치고 있어, 현대적 관점에서는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⑤ (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칫 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12. 정답 ④

(나)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명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하기 방식이다.

① (가)는 자신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실한 인상을 준다.

② (가)는 겸손과 경청을 중시하는 우리말의 전통적인 담화 관습(겸손하게 말하기)을 계승하고 있다.

③ (가)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듣는 이에게 예의 바른 느낌을 준다.

⑤ (나)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어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느낌을 준다.

13. 정답 ③

'화성'은 시험 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촉구화를 찾는 척하며 탄칭을 피우고 있다. 이는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어겨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함축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①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 아니며, 협력의 원리를 걸어서는 어기고 있다.

②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화제와 관련 없는 말을 한 것이다.

④ 상대방에게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요령의 격률과 관련된 상황이 아니다.

⑤ 질문을 던져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상황이 아니다.

14. 정답 ④

한국어에서 '시원하다'는 뜨거운 국물을 마실 때의 긍정적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외국인은 이를 물리적 온도가 낮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모순을 느꼈다. 이는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언어 표현의 의미와 관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① 직업이 아닌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② 시대의 변화가 아닌 문화권의 차이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을 보여 준다.

③ 소속감을 위해 새로 만든 표현이 아니라 기존의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⑤ 방언에 대한 설명으로, 문화적 차이와는 거리가 멀다.

15. 정답 ⑤

ㄹ은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찾아 말하는 '동의를 격률'을 활용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이 덜 되도록 말해야 한다. 조언 내용처럼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부담을 최대화(관용의 격률)하거나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요령의 격률)하는 방향으로 말해야 한다.

① ㄱ은 상대를 비난하고 있으므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칭찬의 격률'을 활용해야 한다.

② ㄴ은 선배의 잘못을 지적하여 체면을 손상시켰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③ ㄷ은 명령조로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어 부담을 줄이는 '요령의 격률'을 활용해야 한다.

④ ㄹ은 자신을 칭찬하고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는 ‘겸양의 격률’을 활용해야 한다.

16. [정답] ⑤

(마)는 자신의 실력이나 자부심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현대적인 말하기 방식으로, 과거의 담화 관습을 오늘날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언어생활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① (가)는 ‘말이 씨가 된다’ 등의 속담을 통해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신중하게 말하기’의 관습을 보여 준다.

② (나)는 남의 말을 가려듣고 경청해야 함을 강조하므로 ‘경청과 가려듣기’의 관습과 관련이 깊다.

③ (다)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와 같이 우회적으로 말했으므로 ‘완곡하게 말하기(돌려 말하기)’의 관습을 보여 준다.

④ (라)는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누실, 황공 등)을 사용했으므로 ‘겸손하게 말하기’의 관습을 보여 준다.

17. [정답] ①

밑줄 친 부분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② ‘관용의 격률’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③ ‘칭찬의 격률’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④ ‘겸양의 격률’은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⑤ ‘동의를 격률’은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18. [정답] ⑤

‘황공하다’는 위엄이나 지위 따위에 놀리어 두렵다는 뜻이다.

① ‘지현’은 현(縣)의 으뜸 벼슬아치를 뜻한다.

② ‘노야’는 남(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③ ‘누실’은 자신이 거처하는 방(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④ ‘왕림하다’는 남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19. [정답] ①

[가]는 자신을 낮추고 공을 돌리는 겸손한 말하기로 상대방에게 예의 바른 느낌(친근함)을 줄 수 있는 반면, [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로 인해 상대방에게 거만한 느낌을 줄 수 있다.

② [가]는 겸손한 태도로 예의 바른 느낌을 주며, [나]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유능한 느낌을 준다.

③ [가]는 자신의 능력을 낮추어 표현하며, [나]는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부각한다.

④ [가]는 겸손함이 드러나며, [나]는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을 강조하여 결단력 있어 보인다.

⑤ [가]는 의도를 완곡하게 전달하여 왜곡될 우려가 있으나, [나]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20. [정답] ③

윤형은 현우가 자신을 칭찬하자 “사실 나는 어릴 적부터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이라며 자신에 대한 칭찬을 그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겸양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칭찬의 격률’을 어긴 것이 아니다.

① 윤형은 첫 발화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부탁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② 현우는 혼자 준비한 윤형을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고 있다.

④ 윤형은 “발표 좀 해 주면 안 될까?”라고 의문형으로 질문하여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

⑤ “발표는 네가 해.”라는 윤형의 말에 현우가 “부담스럽게 왜 그래.”라고 대답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